

소공동체모임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0년 3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www.cathms.or.kr

- 03 소공동체 기도
소공동체 살림살이
- 04 복음 나누기 7단계
- 05 복음 나누기 7단계 자체 평가 방안
- 06 주일복음묵상 | 강윤철 요한 보스코 신부(창녕 본당 주임)
- 10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 큰 잔치의 특례 비유
- 13 가정기도 | Father's
- 16 소공동체 배우기 | 복음 나누기란 무엇인가요?
- 18 함께하는 소공동체 | 지순남 데레사(상남동 성당, 구역분과장)
소공동체, 본당 운영의 밑거름
- 20 순교자를 찾아서 | 김길수 요한
권상연(權尙然 · 야고보 1751~1791)
- 24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소공동체 기도

사랑의 근원이시며 친교의 모범이신 삼위일체의 하느님!
저희들은 초대 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소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실천하여
친교와 봉사와 증거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의 은사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복음 선포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소공동체 살림살이

주간	활동예정사항	나눔사항
사순 제3주간		
사순 제4주간		
사순 제5주간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복음 나누기 7단계

1. 시작성가

2.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3. 복음 나누기 7단계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4.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

복음 나누기 7단계 자체 평가 방안

- 1단계** – 기도의 정신이 있었습니까?
 -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까?
- 2단계** – 성경의 본문을 읽기 전 참석자들이 모두 성경 구절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 성경을 기도하듯이 천천히 잘 읽고, 말씀을 경청하였습니까?
- 3단계** – 성경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치는 사이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 단어나 구절을 소리 내어 기도하듯이 읽었습니까?
 -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여 읽었습니까?
- 4단계** – 침묵의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는 않았습니까?
 -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머물렀습니까?
- 5단계** – 진솔한 개인적인 나눔을 하였습니까?
 - 자신의 나눔이 다른 이들에 대한 가르침은 아니었습니까?
 - 한 사람이 너무 길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 성경 해석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 6단계** – 성령께서 우리의 활동에 관한 토론을 이끄시도록 했습니까?
 - 참석자들이 충분히 말할 기회를 가졌습니까?
 - 지난 주 활동보고와 앞으로의 활동에 관하여 논의했습니까?
- 7단계** –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 모든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까?

3월 7일 사순 3주일

루카 13,1-9.

인생의 열매

죄를 저질렀다고 당장 현세에서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우리의 하느님이 아니시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사람들은 하느님을 조급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죄책감으로 스스로 만든 두려움에서 일 것이다. 죄를 지으면 망한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도 없이 당장은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개를 촉구하신다. 영원하고 결정적인 멸망을 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잘못들? 그것도 회개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이고 절실한 것이 있다. 자기 존재에 관한 것이다. 무화과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존재 이유이고, 만물은 그 나름의 목적과 구실이 있다. 사람에게서는 더 훌륭한 존재 이유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 제 모습을 회복하고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란 종족존속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남을 위한 양식이다. 내가 맺은 열매 그 무엇을 이웃이 따 먹고 있는가?

당장 심판이 주어진다면 나는 베어 없어져야 할 부실한 나무이지 않는가! 그리스도 덕분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었다. 열매 맺지 못하여 잘려질 운명의 포도나무들이 그 포도원지기의 간청으로 우선은 구제되었듯이.

오늘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애타게 기다리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물과 거름을 계속 주고 계신다. 기회는 아직 있다.

인간으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3월 14일 사순 4주일

루카 15, 1-3. 11-32.

재회의 기쁨

해변을 거닐면 모래 위에 발자국이 생긴다. 얼마 후 파도가 밀려오면 발자국을 흔적도 없이 씻어가 버림을 본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 죄를 잊어 주신다. 죄의 괴로움에서 해방시키시고 기죽어 낮추어져 있는 내 마음을 높이고 회복시켜 주신다. 감사하고 기뻐할 뿐이다.

죄책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 잊고 살다가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일을 당하면 의식 밑바닥 한 구석에 있던 죄의식이 되살아난다. 당시에는 당당하게 행했던 것들도 있다. 나이가 들면서 그것들이 잘못 된 것임을 깨닫는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하듯이 깊은 자책감에 빠지고 낭패감에 사로잡힌다.

하느님 없이 살고자 끊임없이 부득부득 떼쓰는 것이 인간이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며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하느님을 떠나 사는 자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하다. 깊은 절망을 직면하고서야 정신을 차린다.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살피고 겸손과 지혜와 참된 용기가 생긴다. 자기 삶에 꼭 찾아야 할 분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다.

집 나간 아들이 절망에 사로잡혀 자학만 하고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무엇이 그가 아들의 품위를 다시 얻게 하였는가! 죄와 함께 살고 있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다만 돌아서서 용서를 청하고, 아버지 하느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 그것이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희망이다.

하느님의 사랑에 가슴 뭉클하다. 참된 기쁨은 이 사랑을 아는 데서 온다. 오늘 복음에서 기쁨을 본다. 돌아오는 사람과 기다리던 사람과의 만남의 기쁨, 회심하는 아들과 회심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기쁨이다. 나도 하느님 품으로 더 깊이 다가가 더 깊은 만남의 기쁨을 얻고 싶다.

나는 이 사순절에 하느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월 21일 사순 제5주일

요한 8,1-11.

해방자이신 예수님

어느 부인이 고해성사마다, 남편이 하도 못살게 굴어 참다못해 그랬다며 자기 죄보다 남편의 잘못들을 불평조로 말하곤 했다. 고민하던 고해신부는 어느 날 다음의 보속을 주었다. “자매님의 죄에 대한 보속은 주님의 기도 1번, 남편의 죄에 대한 보속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3번 하시오.” 그 후부터는 그녀는 자신의 죄만 고백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상대방 탓이라고 여기고, 이웃의 잘못은 작은 것이라도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신다. 하느님의 자비가 절실한 죄인인 주제에 과연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단 말인가! 심판은 오직 하느님께 맡기라 하신다. 그럼에도 이웃을 단죄하려고 우쭐대는 우리다. 그런 나에게 과연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실까?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에게 죄지은 이유를 묻지 않으신다. 다만 앞으로 잘하라고 당부하신다. 절망에 빠진 여인은 죄의 억압에서 풀려나고 새로운 희망을 얻는다. 주님께서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느님의 심판은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해방자요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잘못된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비난하고, 격려하기보다 업신여기고 비웃기를 더 쉽게 했다. 또 내 죄에 움츠러들어 새 삶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했다. 과거의 죄에 대한 집착을 털어내고 주님이 가신 길을 힘차게 따라가야 하겠다. 새로운 힘과 용기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예수님 안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월 28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루카 22, 14-23, 56.

피의 계약

심청이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임당수를 잠재우는 제물로 바쳐졌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공양미 삼백 석을 얻기 위해서다. 거친 임당수에는 처녀의 생명이 그 정성에 합당하다고 뱃사람들이 판단했던 것이다. 천주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신다. 하느님을 거역한 인류가 그 죄를 갚고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다.

주님은 십자가의 봉헌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다. 파스카음식을 먹는 날이었다. 파스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될 때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힘이 건너간 것을 기념하는 해방절이다. 주님께서 당신을 파스카의 어린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라며 먹고 마시라 하신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신다.

성체성사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당신의 피로 '새 계약'을 맺는 십자가 제사의 표징이다.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며 하느님과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맺은 옛 계약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써 탄생한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누구인가?

옛날에 간난 아이로 세상에 오셨듯이 이제는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오시는 주님이시다.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나의 살과 피가 되어 나를 살리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먹은 우리도 당신을 닮아 당신처럼 살라 하신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 놓는 사람이 되라 하신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실현이요 완성이요 구원이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잔치의 특례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22번 ‘구원의 십자가’ 1,2절을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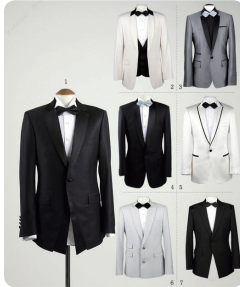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주소서.
- 우리와 함께 있기를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을 느끼게 해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태오 복음 22,1-14 절을 읽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

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 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 자신의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느낌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는 말씀에서 내가 갖추어야 할 혼인예복은 어떤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미사 때 사제의 제의색깔은 항상 같지 않고 전례시기와 미사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는 거행되는 전례의 특성과 전례력에 따라 그리스도인 생활의 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동방 예식에서는 제의 색깔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으나 서방 예식에서는 교황 인노첸시오 3세(+1216)때 처음으로 제의 색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축제의 내용에 맞추어 구분하여 입었다. 현재 교회가 지정한 색깔은 오랜 관습에 따라 여섯 가지이다.

백색은 거룩하게 변모하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하여 영광, 결백, 기쁨을 뜻하므로 부활시기와 성탄시기 등 주님의 축일과 성모 축일, 천사 축일 및 순교자가 아닌 성인 성녀 축일 등에 사용한다. 홍색은 사랑, 고통, 순교 등을 상징하기에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주님 수난 성 금요일, 성령 강림 대축일, 주님의 수난 행사, 사도와 복음사가 축일, 순교자 축일 등에 사용한다. 녹색은 1년 중 가장 오랫동안 보게 되는 색으로 생명, 희열, 희망을 상징하므로 연중시기의 주일과 평일에 사용한다. 자색은 통회와 보속, 절제를 상징하므로 그 의미를 드러내는 대림시기, 사순시기에 사용한다. 흑색은 슬픔, 속죄, 죽음 등을 상징하므로 장례미사, 위령미사 때 사용하지만, 요즈음은 흑색 대신 자색이나 백색을 사용한다. 백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차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장미색은 주로 기쁨을 향한 휴식을 의미하는 대림 제3주일, 사순 제4주일 미사 때 사용한다.

위와 같은 색깔의 제의를 전례에 따라 모두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백색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이처럼 미사 때 사제가 입는 제의색만 보아도 그날 전례의 성격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색깔을 보면서 그날 전례에 합당한 마음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이다.¹⁾

진행자 1) 나는 미사전례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복장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2) 우리들의 마음을 색상을 통해 드러낼 수 있기에 옷의 색상 때문에 겪게 된 사연에 대해 서로 얘기해 봅시다.

기타토의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45번 ‘예수님 따르기로’를 부릅시다.

1) 가톨릭신문, 2004년 9월 26일, 정의철 신부. 발췌

Father's

가정에서 온 가족이 동이와 연필을 준비해서 모여 앉습니다.

* 준비물 - 가족 누만큼의 동이와 펜

 가정기도를 시작하며

진행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 주세요.

 말씀과 함께

진행자 한 사람이 다음의 성경말씀을 읽어주세요.

†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3,1-5

교회 지도자의 자격

¹ 이 말은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훌륭
한 직무를 바라는 것입니다. ² 그러므로 감독은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
님을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³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 아니라, 관대하고 온순하고 돈 욕심이 없으며 ⁴ 자기 집안을 잘 이
끌고 아주 품위 있게 자녀들을 순종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⁵ 자기 집안
을 이끌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진행자 이번엔 다 함께 소리 내어 다시 한 번 읽어요.

(다 읽은 후)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나누기

- ①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②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가장 행복했던 추억은 무엇인지 한명씩 돌아가면서 발표 해봅시다.(부모는 부모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발표합니다.)
- ③ 아버지께 바라는 점을 말해봅시다. 단,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해줬으면 하는 것을 솔직하고, 정확하고,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가정 기도

- 예) 술 좀 그만 드세요! (X)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O)
공부해라 소리 좀 하지 마세요! (X)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O)
용돈이 이게 뭐예요! (X) 꼭 사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어요. (O)

함께 생각하기

진행자 오늘의 이 시간은 '성 요셉 성월'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아버지의 기(氣)를 살려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Father's

내가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

나의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 같은 편안한 아버지	Friend
힘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갑옷 같은 아버지	armor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선생님 같은 아버지	teacher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는 도우미 같은 아버지	helper
세상사 힘들어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엔돌핀 같은 아버지	endorphin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붉은 악마 같은 아버지	red devils
하지만 정말 알기 힘든 아포스트로피 같은 아버지의 마음	'(apostrophe)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인 아버지의 마음	sorry

생각 나누기

- ① 위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돌아가면서 발표해 봅시다.
- ② 아버지(남편)의 장점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해봅시다. 가족 중 한 명이 나온 이야기를 모두 받아 적습니다.(적어도 50개 이상)
- ③ 모아진 내용을 온 가족이 다 함께 소리 내어 읽은 후 아버지의 소감을 들어봅시다.

❖ 함께 실천해요! ❖

인터넷 검색엔진에 「아버지 싸이 뮤직비디오」라고 검색하면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본 후 서로의 느낌을 나눠 봅시다.

아버지...

너무 앞만 보며 살아오셨네 /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 한평생 제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애들이 걱정 마 /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 무섭네 / 세상 도망가고 싶네 /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 만날 아무것도 모른 채 / 내 품에서 뒹굴 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 힘들어도 간다 / 여보, 애들이 아빠 출근한다...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것 딱 하나 / 정직하고 건강한 착한 아이 바른 아이 다른 아빠보단 잘 할테니 / 학교 외에 학원 과외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 너네 아빠한테 잘해 /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 굶는 안사람의 등쌀에 외로워도 간다 / 여보, 애들이 아빠 출근한다...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높은 대학로 / 이젠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 여보 함께 가주시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 이제 나와 같이 가요 / 당신을 따라 갈래요...

❖ 가족회의

진행자 가족회의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사항이나 논의가 필요한 일들, 가족 친지들의 생일, 축일 소식이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가족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자녀에 대한 훈계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평화의 인사

진행자 지금부터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방법은 온가족이 돌아가며 포옹하고,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 가정기도를 마치며

진행자 다함께 손을 잡고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복음 나누기란 무엇인가요?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복음 나누기는 우리의 삶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복음의 실천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 영적으로 성장할 때 신앙이 심화되며 자신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음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아듣게 하고 올바른 삶을 사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복음 나누기를 통해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찢개어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찢개어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와는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 내용의 객관적인 사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나누기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와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나누기를 할 때에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춘 지도자나 능력 있는 리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나누기는 예수님을 사랑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나누며 그것이 다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듣고 진솔하게 나누면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1티모 3,15-16)”

다음 호에서는 복음나누기 7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소공동체 봉사자교육 1단계」(수원교구 복음화국 소공동체부)



소공동체, 본당 운영의 밑거름

지순남 데레사(상남동 성당, 구역분과장)

상남동 성당 소공동체 모임은 6개 구역 17개 반으로서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제법 알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공동체별로 매 주일마다 전례에 협조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성당 청소와 환경정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세자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반 배정을 하여 소공동체 내에서 신앙을 키워나가고 어느 정도 신앙심이 여물어지면 레지오 입단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본당 내에서도 소공동체와 레지오가 서로 견제를 한다거나 반목하지 않고 원만하게 상호 협조하고 있습니다. 본당 사목회 내의 ‘쉬는 교우 관리분과’와 ‘꾸리아’ 그리고 소공동체가 협력하여 쉬는 교우 가정 방문을 통해 냉담 중에 있던 많은 젊은 층의 신자들을 다시 성당에 나오게 하여 청년회를 생기게 한 것이 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본당의 경우 각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서 시작하다 보니, 소공동체 반원 모두가 나의 가족이나 다름없이 여겨지며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 나눔이나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는 복음나누기 7단계로 진행하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를 통해 보다 쉽고 편안하게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첫 주 토요일에 가지는 소공동체장 모임에서는 소공동체장과 서기가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보고, 기도 분위기를 조성하여 각 공동체로 돌아가 원활하게 복음나누기와 모임을 이끌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공동체장 가운데에서는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을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교육

에서 배운 것들이 모임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각 소공동체에서 교구장님 사목지표인 ‘순교 영성으로 세상의 복음화’를 삶으로 살아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 수녀님께서 선정해 주신 「집념의 인간 야곱」, 「50가지 예수 모습」을 비롯한 10권의 영적도서를 소공동체별로 구입하여 읽고,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하더라도 순교 영성을 바탕으로 한 영적 성숙을 통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데에 앞장서 갈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불우 이웃을 위하여 김장나누기에 동참할 예정이며 그밖에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고, 쉬는 교우 가정 방문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알뜰하게 꾸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공동체별로 어려운 점도 많고 신자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때에는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로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신앙선조들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곳곳이 소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려 노력합니다. 특히 한국의 순교자를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소공동체장들은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임을 운영해 나갑니다. 이처럼 내게 주어진 몫에 충실하며 가정과 이웃을 돌보고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으실 것이며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 사목국에서는 소공동체 운영과 관련한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활발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소공동체나,
소공동체 활동으로 인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다양한 사례를 보내어 주세요.
문의: 055-249-7021~3 메일: mssamok@hanmail.net
우편: (631-860) 경남 마산시 오동동 107-23번지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

권상연(權尙然·야고보 1751 ~ 1791)

- 예수·마리아를 부르며 -

김길수·사도요한(전 대구가톨릭대학 교수)

신유박해 때 진산의 유명한 순교자 윤지충의 외사촌인 권상연 야고보(1751 ~ 1791)는 사헌부 지평을 지낸 권기(權愷)의 고손자로 본관은 안동이다. 아버지 권세학, 어머니 전주 이 씨로 권상연은 조상 대대로 공주 탄방에서 살다가 고조부인 권기 때에 진산으로 이주해 정착했다. 진산에서 부모님을 여윈 야고보는 고종사촌인 윤지충과 이웃하여 살면서 친밀하게 지냈다.

권상연은 유교적 학문에 정진하고 있었는데 친밀하게 지내던 윤지충이 탐독하던 《천주실의》와 《칠극》을 빌려보고 신앙에 눈뜨고 윤지충에게서 교리를 배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에만 열중하였다. 그러던 중인 1790년 윤유일이 가져온 구베아(Gouvea, 湯士選)주교의 사목서한에 조상 제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많은 양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다. 권상연은 이때 윤지충과 함께 양반이 떠나는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며 따랐다. 이듬해 여름 고모(윤지충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모든 친척들이 의아해하는 중에 권상연은 고종사촌인 윤지충

을 따라 천주교 예절에 따라 장례를 치르는 데 적극 참여하고 뜻을 함께 했다. 그는 “신주와 같은 나뭇조각을 공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무익한 일이며 이를 금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어기기보다는 차라리 형벌과 죽음을 택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권상연이 윤지충과 함께 신주를 불사르고 전통예절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소문은 친척들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비난이 잇달았다. 이 일이 마침내 당시 천주교를 반대하며 공격하던 공서파 홍낙안도 알게 되었다. 홍낙안은 그해 9월에 진산군수 신사원에게 이들을 체포하여 처형하라고 하였고 10월에는 또 다시 좌의정 채제공에게 이들을 고발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에 채제공은 전라감사 정시민에게 진위여부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윤지충은 광주로 권상연은 한산으로 각각 몸을 피했다. 이들이 도망친 것을 안 관원들은 대신 윤지충의 숙부 윤증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다. 그러자 윤지충과 권상연은 진산군수에게 자수하였다. 권상연은 1791년 10월 28일 옥중에서 윤지충과 만나 순교하기까지 함께 옥중생활을 하였다.

진산군수는 먼저 이들을 달래면서 천주교신앙을 버리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천주교가 진리임을 역설하면서 “절대로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했다. 여러 차례 설득과 회유에도 이들의 태도가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보고 진산군수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

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전주감영으로 이송토록 하였다.

전주감영에 도착한 권상연과 윤지충은 혹심한 문초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교회나 교우들에게 해가 되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진주감사는 할 수 없이 이들의 최후 진술을 받아 조정에 보고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유혈이 낭자하면서도 신음소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주의 가르침이 지엄하다고 하면서 임금이나 부모의 명은 어길지언정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정조 실록》 권 33. 15년 11월 7일)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123위」(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2003. 9. 19 참조)

비방의 상소와 청원이 계속되는 중에 사형판결을 받았다. 심한 매를 맞아 쇠약해진 권상연 야고보는 끊임없이 예수·마리아 이름만 불렀다. 형장에 이르자 관리는 마지막으로 배교를 강요하며 신주를 공경하라고 요구하였다. 권상연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대답하면서 계속하여 예수·마리아를 불렀다. 대부분의 한국 순교자들은 이렇게 죽음의 형장에서 계속해 쉬지 않고 예수·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순교해갔다. 그의 나이 40세이던 1791년 12월 8일 전주에서 참수됨으로써 한국교회의 최초 순교자로 윤지충과 함께 기억되고 있다.

《사학 정의》의 〈부 요화사서 소화기〉에는 윤현의 집에서 압수한 책들 중에 〈죄인 지충일기〉가 있었다 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초기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순교자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윤지충의 공술서를 필사하여 애독하였을 듯하다. 윤지충의 공술서와 권상연의 공술은 함께 볼 수 있는데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으므로 제가 천주교를 신봉하게 된 뒤로 제 부모의 장례를 지낼 일이 없었습니다. 이 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윤지충이 말한 것과 다를 바 없으니 더 이상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늘 권상연은 윤지충과 함께 했다.

참수치명 9일 만에 관장의 허락을 얻어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둘 때 시신은 깨끗하고 형구에 묻은 피는 선명하여 매우 놀라게 했다. 교우들은 여러 장의 손수건을 순교자의 피에 적셨으며 당시 죽어가던 환자가 피 묻은 손수건을 만지고 나운 일이 있어 더욱 놀라워하며 그 중 몇 조각을 북경 구베아 주교께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작자 미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않으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며,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묵묵히 요란하지 않게,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소리없이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나그네들이다.

희생을 즐기고,
자신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겨 감추고,
타인의 이름을 더 존경하여 그를 높이는 이들이다.

언제나 남들에게 이익을 주며,
기쁨을 맛보게 해 주며,
행복이 무엇인지 몸으로 가르쳐 주며,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이름마저 지워놓고,
어디론가 떠나가는 사람들이다.
님께서 인도하시는 오직 그 길만을 기쁘게 따라가는 바람같은
나그네들이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 안에서조차
그림자처럼
나의 소명을 사는 사람들이다.